

단타냐, 미장이나... 코스피 변동성·잇단 악재에 엇갈린 투심

이달 코스피 사이드카 12번, CB 2번
코스피200 변동성지수 최고치

투자자에탁금 139조 → 104조대로
美 순매수, 단타·물타기 세력 늘어
유가상승세, 美 관세 등 악재 잔존
정부, 단일종목 레버리지 규제 속도

자영업자인 김광중(41)씨는 요즘 ‘단타’ (짧은 기간 사고 팔기)에 폭 빠졌다. 김 씨는 “장기 투자가 정답인 걸 알지만, 반도체 투 톱(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변동성이 너무 심해 기다리는 동안의 기회비용이 크게 느껴진다”며 “급락장에 손 놓고 있는 것보다 자주 매매하면서 하루에 밥값만 벌자고 맘을 먹으니 속이 그나마 편하다”고 말했다. 코스피가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투자 행보가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김 씨와 같은 단타족이 있는가 하면, 국내 투자를 접고 미장(미국 시장)으로 다시 발길을 돌리는 이들이 늘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불확실성은 커졌지만, 증시 상황 추세가 꺾인 것은 아니라고 전망한다.

◆ 도박판 뻘친 코스피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코스피 시장에 12번의 사이드카, 2번의 서킷브레이커(CB)가 발동했다. 지난 24일까지 17거래일 동안 발동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이틀에 한 번 꼴로 시장안전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이달 17거래일 중 12거래일(70.58%)에서 사이드카가 발동하면서 지난달 기록했던 월간 최다 기



지난 24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406.27포인트(5.72%) 내린 6690.62에 마감했다. /뉴시스

록이었던 10회를 바로 넘어섰다.

올해 들어서는 매수 사이드카 20회, 매도 사이드카 21회를 합쳐 총 41번의 사이드카가 발동했다. 종전 연간 최다였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6회보다도 15회가 많다.

극심한 변동성 장세가 지속되면서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도 역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지난달 29일에는 96.94에 마감하면서 해당 지수가 공식 발표된 2009년 4월 13일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지난달에는 평균 84.82를 기록했으며, 이달에는 84.84를 유지하고 있다.

변동성 확대는 지수 급락으로 이어졌다. 이달 들어 코스피는 21% 하락하면서 6690선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 최고점이었던 지난달 22일 9144.55 대비 약 27% 하락한 수준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올해 코스피 변동성이

코인 시장보다 크다”고 보도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바로 훗날 도박판”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극심한 변동성 장에서도 시장 참여자들의 행보는 엇갈린다.

투자 대기자금인 투자자에탁금은 지난달 초 139조원대에서 이달 24일 104조 2975억원으로 떨어졌고, 같은 기간 신용거래용자 잔고도 38조원대에서 33조원으로 5조원 이상 줄어들었다. ‘서학개미’의 이달 미국 주식 순매수액은 25억 3026만 달러(약 3조 7114억원)로 전월 6억 3296만 달러(9284억원)의 4배가 됐다. 소나기를 피해 미국 시장으로 옮겨간 것이다.

반면, 단타와 ‘물타기’(매수단가를 낮추기 위해 내린 가격에 추가 매수하는 행위) 세력이 늘고 있다. 한국거래소와 코스콤 ETF CHECK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14종을 사흘(21~23일) 연속 총 5471억원가량 순매도한 뒤

24일 하루에만 4500여억원을 폭풍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예탁금 상황이 오는 31일부터 이뤄질 예정인 만큼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소위 ‘물타기’를 하려는 수요도 발생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 불안한 증시, 짓누르는 악재

시장 주변 여건을 보면 악재의 연속이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치솟으면서 하반기 국내 물가에 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가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소비자물가를 자극하면서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개미들의 투자 여력이 줄 수밖에 없다. 한은은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은 평균 29만 6000원, 자영업자는 평균 56만 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도 평균 7만 6000원 늘어난다.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움직임과 환율 변동성도 수출과 내수 회복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히면서 하반기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60개 국가·경제권에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에는 12.5%의 관세율이 적용됐다.

다만 변동성은 어느 정도 완화할 전망이다.

정부가 증시 출렁임을 키운 주범으로 지목돼 온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움직임에 2배 배당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 규제 카드를 꺼내 든 상황이다.

정부는 다음 달 중 시행하려던 예탁금 상향 조치를 오는 31일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매매 단위를 1주에서 20주로 늘리는 방안도 당초 일정한 11월 중보다 이르게 시행하는 것도 추진한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주가 하락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의 추가 매수 여력이 약화된 상태”라며 “여기에 예탁금 규제까지 시행되면 변동성은 상당 부분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현재 유가 급등발 금리 상승 압력이 재차 출현하고 있다는 점은 주식시장에서 밸류에이션상 할인을 부담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국면”이라면서도 “이전 금리 급등기에 비해 코스피의 밸류에이션 부담 자체가 낮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모건스탠리와 JP모건은 최근 조정 받고 있는 코스피에 대해 바닥을 언급하며 반등할 수 있다고 봤다. 모건스탠리는 코스피 기본 시나리오 목표치인 9000을, JP모건은 12개월 목표 지수 1만 2500을 각각 유지했다. 모건스탠리는 코스피가 기술적 약세장에 들어선 것은 아니라며 여러 지표가 코스피의 바닥 근접을 시사한다고 봤다. 다만 인공지능(AI) 투자-하이퍼스케일러(대규모 데이터센터 운영사) 자본지출-반도체 공급 여건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변동성이 지속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휴대폰 렌탈계약으로 빚더미”... 신종 금융사기 주의보

☎ 금감원 Q&A

대출 조건으로 핸드폰 렌탈계약 체결
이를 담보로 고금리 대출 실행 방식
eSIM 사업 투자 사기도 주의 대상

빌리지도 않은 휴대폰이 빚으로 돌아오고, 고수익 부업인 줄 알았던 eSIM 투자가 투자금 편취로 이어지는 신종 금융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경기남부경찰청, 서울 영등포경찰서와의 공조과정에서 확인된 불법사금융과 유사수신 범죄 사례를 공개하고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에는 휴대폰 렌탈 계약을 악용한 신종 불법사금융이 등장했습니다. 불법 사금융업자는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해 대출 조건으로 배달 대행업 사업자등록과 휴대폰 렌탈계약 체결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휴대폰 단말기를 받지도 않고 유심도 개통되지 않으며, 렌탈료를 납부할 의무도 없는 허위 계약입니다. 그럼에도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인도받은 것처럼 설치확인서에 서명하도록 한 뒤, 이를 담보로 별도의 계약서 없이 고금리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이후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렌탈채권을 다른 업체에 넘기고 추심회사까지 동원해 상환을 압박합니다. 겉으로는 정상적인 렌탈계약처럼 보이는 만큼 형사고소나 법적 조치를 언급하며 협박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은 외형은 렌탈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부업법 적용 대상인 불법 고금리 대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는 eSIM 투자 사기도 주의 대상입니다. 불법업자들은 여행객이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eSIM을

판매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합니다.

투자자에게는 허위 플랫폼 안에 개인별 온라인 점포를 제공하고, eSIM이 판매될 때마다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설명합니다. 초기에는 실제 수익금을 지급해 신뢰를 쌓은 뒤 투자금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또 유튜브에는 AI로 제작한 홍보 영상을 올리고, SNS에는 수익 인증 후기와 성공 사례를 대량 게시해 정상적인 사업처럼 꾸밈니다. 그러나 투자자가 수익금을

인출하려 하면 세금이나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고, 이후 홈페이지를 폐쇄하거나 잠적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 렌탈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 불법사금융을 우선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동시에 약속하는 투자 상품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온라인에 게시된 홍보 영상이나 수익 후기 역시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불법업자로 의심될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경찰(112)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3)에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이찬진, 아태지역 금융감독 공조 강조

(금감원장)

싱가포르서 ‘EMEAP GHOS’ 참석

금융감독원은 이찬진 원장이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5차 동아시아-태평양지역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EMEAP GHOS)에 참석했다고 27일 밝혔다.

EMEAP는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 금융감독기구와 중앙은행 간 협력 증진 및 정보 교환을 위해 1991년 출범한 협의체다. 이번 회의는 싱가포르 통화감독청(MAS)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금융감독기관장과 중앙은행 총재 등 16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금융권 인공지능(AI) 도입 확대에 따른 감독 체계와 최근 글로벌 정세 변화에 따른 공급망 훼손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대응 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

금융감독기관에서는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일본 금융청(FSA),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NFRA),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호주 건전성감독청(APRA)이 참석했다. 중앙은행에서는 한국은행을 비롯해 일본은행(BOJ), 중국 인민은행(PBOC), 싱가포르 통화감독청(MAS), 홍콩 금융관리국(HKMA) 등 11개 기관이 함께했다.



(왼쪽부터) 프리데리카 위디아사리 데위 인도네시아(OJK) 금융감독청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이 원장은 회의 기간 프리데리카 위디아사리 데위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청장과 양자면담을 갖고 양국 금융산업 교류와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허정윤 기자

“RIA, 매도체결 아닌 ‘결제일’ 확인해야”

결제일 따라 양도소득 공제율 변동
IMA 등 가입 시 유의사항 안내도

금융감독원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내시장복귀결제(RIA) 이용자들에게 매도 체결일이 아닌 결제완료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결제일에 따라 양도소득 공제율이 달라져 예상보다 세금을 더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종합투자계좌(IMA)와 은행 ETF 특정금전신탁 가입 시에도 수수료와 중도해지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

은 금융투자상품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최근 금융투자상품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가운데 RIA 계좌와 IMA, ETF 특정금전신탁 이용 시 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RIA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 공제율은 매도 주문이 체결된 날이 아니라 매도 결제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해외주식은 시장별로 결제까지 T+1일에서 T+3일까지 소요될 수 있어, 월말에 매도하더라도 결제일이 다음 달로 넘어가면 적용받는 공제율이 달라질 수 있다.

/허정윤 기자